홍콩 이공대가 “사행 방지 특수 방적사” 개발

홍콩 이공대학이 개발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특수 방적사가 홍콩의 유력 방적 회사인 ‘센트럴 텍스타일’에 의하여 공업 생산하게 되었다.

실의 꼬임을 적게 하면서 강도를 유지하여, 천에 사행(斜行)이 생기는 원인인 토크(torque)를 억제한 방적사로서 니트, 직물의 양 분야에서 판매된다.

이 방적사는 엑스트라 소프트(extra-soft)하며, 홍콩 이공대학에서는 “누-토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창업 기금을 받아 2년만에 개발에 성공하였다. 용도는 먼저 스웨터용으로 상품화되었으며, 직물 분야에도 투입될 것이다.

가격은 같은 원료로 뽑은 링 방적사보다 20~30% 비싸게 될 것이다. 홍콩에서 상품 발표회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터스토프 아시아” 및 “인터텍스타일 상하이”에서도 발표하였다.

보통 방적사는 꼬임을 주면 강도가 올라가는데, 대신 실이 굳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발생한다. 이것이 니트나 직물 원단에서 사행의 원인이 된다. 이 새로운 방적사는 꼬임이 적은 약연이면서도 실의 강도를 유지하고 토크를 억제한다.♣